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속도는 독자가 글을 읽어 나가는 빠르기를 뜻하며, 독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의 하나이다. 독서 속도의 조절에는 대표적으로 ‘훑어읽기’와 ‘정독’이 있다. 훑어읽기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핵심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글을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이다. 이때 독자는 제목, 소재목, 문단의 첫 문장 등을 중심으로 글의 윤곽을 잡는다. 정독은 글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꼼꼼하게 이해하기 위해 글을 느린 속도로 읽는 방법이다. 독자는 독서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 이 두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훑어읽기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가령 처음 접하는 글을 읽을 때, 독자가 먼저 훑어읽기를 하면 글이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정독은 글에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이나 개념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지며 읽는 데 효과적이다. 독서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이해의 질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 훑어읽기를 통해 미리 파악한 글의 구조 정보는 이후의 정독에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가 글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각 문단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느리게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독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리게 읽으면 세부 내용에 매몰되어 글 전체의 맥락을 놓칠 수 있다.

훑어읽기에만 의존하면 세부 정보를 놓치기 쉽고, 정독에만 의존하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서 목적에 맞게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는 처음에 훑어읽기로 글의 구조를 파악한 뒤, 독서 목적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을 정독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때 훑어읽기에서 얻은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을 정독할 것인지 판단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정독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이 처음에 파악한 전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점검하면, 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 속도는 독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② 훑어읽기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③ 정독은 글에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며 읽는 데 효과적이다.
- ④ 느리게 읽는 것만으로는 글의 이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⑤ 훑어읽기는 글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훑어읽기가 정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훑어읽기를 통해 파악한 구조 정보는 세부 내용의 이해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훑어읽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독서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에만 활용된다.
- ④ 독자가 각 문단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읽기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글의 구조를 미리 아는 것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한 학생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읽으며 기록한 독서 일지이다.

- ㉡ 보고서의 목차와 각 장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내용을 다루는지 파악했다.
- ㉢ 기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며 읽었다.
- ㉣ 정책 제안 부분은 나의 독서 목적과 거리가 멀어서 빠르게 넘기고, 핵심 데이터가 제시된 부분에 집중하여 천천히 읽었다.
- ㉤ 세부 수치가 나열된 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고서 전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
- ㉥ 도입부에서 보고서의 전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더니, 이후에 각 장의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핵심 논거인지 예측할 수 있었다.

- ① ㉡에서 학생은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훑어읽기를 활용하였다.
- ② ㉢에서 학생은 글에 제시된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독을 활용하였다.
- ③ ㉣에서 학생은 독서 목적에 따라 읽기 속도를 달리하여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 ④ ㉤에서 학생은 훑어읽기에만 의존하여 세부 정보를 놓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에서 학생은 훑어읽기를 통해 미리 파악한 구조 정보가 이후 정독에 도움이 된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흔히 기술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도구적 기술관에 따르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며,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관점이 기술의 본질을 ㉠ 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자가 비은폐성으로 나아오는 방식, 즉 탈은폐의 한 양태이다. 고대의 테크네는 장인이 제작을 통해 사물을 그 자체로 ㉡ 드러나게 하는 예술적 성격을 지녔으며, 이는 자연이 스스로 피어나는 것과 유사한 진리의 발생 과정이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고대의 기술과 다르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고 저장하도록 강요하는 도발적 요청이다. 이 틀 안에서 자연은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환원된다. 예컨대 라인강은 더 이상 시적 영감을 주는 흐름이 아니라, 수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수압의 공급원으로서만 나타난다. 이때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자립성을 상실하고 언제나 대체 가능한 자원, 즉 부품으로 전락한다. 사물은 우리 앞에 대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 대기 상태로 비축된 재고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몰아세움의 경향이 인간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기술의 주인으로서 자연을 지배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인간 역시 기술적 과정에 ㉢ 투입되어야 할 인적 자원으로 관리된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화하는 방식으로만 세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사유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경고한다. 이를 '존재 망각'이라 부른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기술을 기술적으로만 다루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통해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종종 인간성을 억압하고 문화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몽통은 기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기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적 대상은 단순한 효용의 묶음이나 인간을 소외시키는 타자가 아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의 생명 활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과 기술이 상호 작용하며 진화하는 존재라고 파악한다. 기술적 소외는 기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기계의 본성을 오해한 문화적 관습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것이다.

시몽통은 기술적 대상의 발전을 ㉣ 구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초기 단계의 추상적 기계는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외부의 간섭이나 보조 장치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술이 진화할수록 부품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부품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체적 상태로 나아간다. 이는 기계가 외부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적 정합성을 ㉤ 갖춘 유기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냉각 편이 엔진의 열을 식히는 동시에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겸하게 되는 내연 기관의 발전 과정이 그 예이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단순한 도구의 개선이 아니라, 기술적 대상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완결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몽통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리려 할 때, 인간 역시 기계를 감시하는 노예로 전락한다. 대신 인간은 기술적 대상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시키는 지휘자이자 통역자가 되어야 한다. 기계는 스스로 의미를 생성할 수 없기에, 인간이 기계의 발명과 진화 과정에 참여하여 그 잠재력을 매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기술적 대상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과 동등한 존재로서 개방성을 가질 때, 기술은 문화의 일부로 ㉥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기술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나열하며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는 특정 기술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 (가)는 기술을 도구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고, (나)는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판하며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 ㉢ (가)는 기술적 사유가 초래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나)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인간 소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 (가)와 (나)는 모두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구분하며, 현대 기술이 과거의 기술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가)와 달리 (나)는 기술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중립적인 수단으로 정의하며, 기술 사용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5. (가)의 '하이데거'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현대 기술은 자연이 스스로 피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드러낸다.
- ㉡ 현대 기술의 틀 안에서 자연물은 고유한 존재의 의미를 잃고 언제나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한다.
- ㉢ 기술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기술이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
- ㉣ 현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 기술을 통제하며 주체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 ㉤ 인간이 기술적 사유에만 함몰되면 존재의 본질을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존재 망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6.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적 대상이 진화할수록 부품들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게 되고, 외부의 보조 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이다.
- ②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현상이다.
- ③ 기술적 대상 내부의 각 부품이 상호 연관되어 하나의 부품이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적 정합성을 가진 통합체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 ④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필요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며, 기계의 구조가 인간의 신체 기능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⑤ 추상적인 설계가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기계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이다.

7. (나)의 관점에서 (가)의 현대 기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이데거가 기술을 인간성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본 것은, 기술적 대상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하이데거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으로 파악하여 비판한 것은, 기술을 문화적 실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대시한 결과이다.
- ③ 기술적 대상을 부품으로 전락한 존재로만 보는 하이데거의 시각은, 기계가 가진 내적 정합성과 잠재력을 간과한 것이다.
- ④ 하이데거가 기술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인간이 기술적 대상의 조정자로서 참여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태도이다.
- ⑤ 기술이 자연을 강요한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은, 기계가 외부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완결성을 갖추어 가는 구체화의 원리를 정확히 통찰한 것이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근 널리 보급된 한 성과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모든 활동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하며, 흩어져 있던 활동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스스로 최적의 휴식과 활동 강도를 제안한다.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 내의 실시간 순위표에서 타인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 휴식을 줄이고 고강도 스케줄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이들은 데이터로 가시화되는 성장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자기 최적화에 몰두하지만, 정작 시스템이 설정한 효율성 지표 외에 자신의 삶이 갖는 근원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

- ① (가)의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용자가 효율성 지표에 매몰되는 현상은, 몰아세움의 경향이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된 존재 망각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의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스템의 제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온전히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시몽동에 따르면 스스로 최적의 효율을 찾아 제안하는 시스템의 발전 양상은, 기술적 대상이 내적 정합성을 갖춘 구체화의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이라 하겠군.
- ④ (나)의 시몽동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스템의 지표를 활용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기술적 대상의 존재 방식에 관심을 갖고 기술과 상호 작용하며 진화하는 과정의 단초를 보여주는군.
- 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시몽동 모두 기술적 시스템이 인간의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현상에 대해,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위한 중립적인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폐(隱蔽)하고
- ② ㉡: 폭로(暴露)하게
- ③ ㉢: 귀속(歸屬)되어
- ④ ㉣: 포착(捕捉)한
- ⑤ ㉤: 타협(妥協)될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채는 원리금 지급을 약정한 채무증권으로 이자와 원금 회수가 보장되어 안정적이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 반면 주식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투자 위험이 크다. 이에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결합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초과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신종 사채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 사채로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이 있으며, 권리 행사 시 채무 영향은 서로 다르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인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부채인 사채는 소멸하고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늘어 자본이 증가한다. 반면 교환사채의 교환권은 행사 시 사채가 소멸하는 대신 발행사의 기존 주식으로 교환된다. 신주 발행이 없어 자본금 변동은 없으나 주식 인도로 총자산은 감소한다. 이때 교환 주식이 자기주식인 경우 자산의 회계 장부상 가치인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본 항목인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반영되어 기업이 일정 회계 기간 동안 거둔 최종 순손익인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타사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처분손익으로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최종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변동시킨다.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약정 가격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사채이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권리를 행사해도 사채는 만기까지 존속한다. 대신 투자자의 인수 대금 납입으로 현금이 유입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증가한다.

권리 행사 시 주당 기준 가격을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라 한다. 투자자의 옵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이다. 내재가치는 주가에서 전환가격을 뺀 값으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때만 발생하고 그 이하일 때는 영이다. 시간가치는 만기 전 주가 상승으로 내재가치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기댓값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두 가치가 모두 올라 옵션 가치가 커지나, 주가가 하락하면 내재가치가 소멸하여 옵션 가치가 떨어진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전환가격이 주가 변동에 연동되는 사채는 교부 주식 수가 고정되지 않아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옵션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어 매 결산기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된다. 그 결과 주가 상승 시에는 옵션 가치 증가분이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 시에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이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발행 기업은 투자 유인을 위해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낮추는 리픽싱 조항을 두기도 한다. 리픽싱으로 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동일한 액면금액 대비 교부받을 주식 수가 늘어난다. 다만 신주 발행으로 총주식 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지분율 희석이 발생한다. 늘어난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내 규정은 조정 가능한 전환가격의 하한을 최초 전환가격의 70%인 리픽싱 하한선으로 제한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하향 조정 후 주가가 상승하면 최초 전환가격 한도 내에서 전환가격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반면 공모 사채와 교환사채는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된다.

10. 밑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발행사의 부채가 소멸하는 공통점이 있다.
- ② 교환 대상이 타사 주식일 때와 달리 자기주식일 때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전환가격이 주가 변동에 연동되는 사채는 주가 상승에 따른 옵션 가치 증가 시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 ④ 공모 사채와 교환사채는 전환가격 하향 조정 후 주가 상승 시에도 최초 가격 한도 내로 이를 의무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증가한 후 투자자의 인수 대금 납입과 자산 유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1. '교환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환권 행사 시에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와 달리 발행사의 총 발행 주식 수에 변동이 없다.
- ② 행사 시 발행사의 사채 소멸로 부채 총액이 감소하고 기존 주식 인도로 총자산이 감소한다.
- ③ 행사 시 사채 소멸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므로 기존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겪지 않는다.
- ④ 교환 시 인도하는 주식은 자본금 증가를 동반하지 않아 기존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 ⑤ 교부 주식이 자기주식인지 타사 주식인지에 따라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회계 처리 영향 유무가 달라진다.

12. '리픽싱 조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격 하락 시 옵션의 시간가치가 급상승하여 옵션 가치가 주가 하락 전보다 높아진다.
- ② 리픽싱 조항이 있는 사채는 없는 사채에 비해 주가가 최초 전환가격 이하로 하락 시 하향 조정을 통해 내재가치가 영이 되는 시점을 늦추거나 내재가치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
- ③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격 하락 시 교부 주식 수의 증가 비율과 동일하게 최종 지분율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 ④ 전환가격 하향 조정 시 발행사는 옵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 ⑤ 전환가격 하향 후 주가 추가 하락 시 투자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으로 평가 손실을 입는다.

1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상장법인 A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일 조건으로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교환사채를 각각 발행하였다. A사의 주가는 사채 발행 이후 6,000원까지 폭락하였다가, 이후 12,000원으로 급반등하였다.

- A사의 기존 발행 주식 수: 700,000주
- 사채 총 액면금액: 21억 원(2,100,000,000원)
- 최초 전환가격 및 교환가격: 10,000원
- 리픽싱 조항: 주가 하락 시 조정일 전일의 기준주가와 동일하게 전환가격 및 교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되, 하한선은 최초 가액의 70%인 7,000원으로 설정함
- (단,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예외 조정 요건은 없음).

- ① 사모 교환사채는 사모 전환사채와 달리 주가가 12,000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의무 상향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환가격이 7,000원으로 유지되므로, 권리 행사 시 전환사채보다 더 많은 주식을 교부받아 평가 차익이 더 크다.
- ② 주가가 6,000원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전환가격이 6,000원으로 조정되어 액면금액 대비 350,000주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 ③ 사모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 12,000원 상승 시 전환가격이 의무 상향 조정으로 12,000원이 되므로 권리 행사 시 평가 차익이 없다.
- ④ 사모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 12,000원 반등 시 전환가격 의무 재조정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률은 주가가 6,000원일 때에 비해 증가한다.
- ⑤ 사모 교환사채 발행 후 주가 12,000원 반등 시 행사로 발행 주식 총수가 300,000주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70.0%로 희석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7 EBS 연계**

동물과 달리 식물은 생애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기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영구적인 생장이 가능한 것은 세포 분열이 활발한 미분화 세포 집단인 분열 조직 덕분이다. 분열 조직은 줄기나 뿌리 끝에서 길이 생장을 이끄는 정단 분열 조직과, 측면에서 부피 생장을 이끄는 측생 분열 조직으로 나뉜다. 특히 줄기 끝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줄기세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세포를 공급하여 줄기, 잎, 꽃 등 모든 지상 기관을 형성한다.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형태적 층 구조와 기능적 구역으로 구분된다. 형태적으로는 세포 분열 방향에 따라 초층과 내층으로 나뉜다. 바깥의 초층(L1, L2층) 세포는 표면에 수직인 수층 분열만 수행하여 평면상에서 표면적을 넓힌다. 반면 내층인 L3층 세포는 병층 분열도 함께 수행하여 안쪽으로 세포를 쌓음으로써 줄기의 부피를 늘리고 내부 조직을 형성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단 분열 조직의 기능적 구역은 중심대, 주변대, 갈비대로 나뉜다. 정단부 중앙의 중심대에는 미분화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주변대에서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 기관 시원체(기관의 초기 세포 집단)로 발달한다. 중심대 아래의 갈비대는 내부 기본 조직을 형성하며, 갈비대의 상부이자 중심대 바로 아래에는 줄기세포의 성질 유지를 돕는 형성 중심이 존재한다.

줄기세포의 항상성은 형성 중심의 WUSCHEL(WUS) 단백질과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CLAVATA3(CL3) 단백질의 음성 피드백으로 유지된다. 형성 중심의 WUS 유전자가 만드는 WUS 단백질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중심대의 줄기세포는 물론 인접한 세포층으로도 이동한다. WUS 단백질은 줄기세포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에서 신호 전달 펩타이드인 CLV3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촉진한다. 분비된 CLV3 단백질은 형성 중심의 CLV1 수용체 등과 결합해 WUS 발현을 억제한다. 즉, 줄기세포 증가로 CLV3가 늘면 WUS가 억제되어 줄기세포 생성이 줄고, 줄기세포 감소로 CLV3가 줄면 WUS 억제가 풀려 줄기세포 생성이 늘어난다.

이 조절 경로는 식물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장 상태를 통합한다. 사이토키닌은 형성 중심에서 WUS 발현을 촉진하는데, 사이토키닌에 의해 활성화된 B-type ARR 단백질이 WUS의 발현을 유도한다. 발현된 WUS 단백질은 사이토키닌 신호를 방해하는 A-type ARR의 발현을 억제하여 사이토키닌 활성을 유지한다. 반면 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옥신은 주변대에 고농도로 분포한다. WUS는 중심대 세포의 옥신 반응성을 낮춰 줄기세포의 조기 분화를 막는다. 이러한 유전자 피드백과 호르몬 분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은 환경에 맞추어 분열 조직의 생장을 조절한다.

14.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1층과 L2층 세포는 표면에 평행하게 분열하여 내부 조직을 형성한다.
- ② 갈비대는 줄기의 중심부 조직을 형성하며 중심대의 하부에 위치한다.
- ③ 형성 중심은 갈비대의 상부에 위치하며 줄기세포의 성질 유지를 돕는다.
- ④ 주변대의 세포들은 중심대의 세포들에 비해 분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 ⑤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지상부 식물체의 줄기, 잎, 꽃 등의 형성을 담당한다.

15. 위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US 유전자가 결핍된 돌연변이체는 줄기세포의 수가 정상보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겠군.
- ② 줄기세포에서 발현된 CLV3 단백질은 인접한 주변대로 이동하여 WUS의 발현을 억제하겠군.
- ③ 사이토키닌 신호를 방해하는 A-type ARR이 과다 활성화되면 WUS의 발현이 억제되겠군.
- ④ 줄기세포가 밀집한 중심대의 세포는 주변에 비해 옥신 반응성이 높아 분화가 촉진되겠군.
- ⑤ CLV1 수용체 단백질의 결함으로 CLV3와의 결합이 불가능해지면 형성 중심이 축소되겠군.

16.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식물 생리학 연구진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애기장대 돌연변이체들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 돌연변이체 A는 CLV3 유전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개체이다. 관찰 결과, 정상형에 비해 줄기세포의 수와 정단 분열 조직의 전체 부피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실험 2] 돌연변이체 B는 L1층에서만 특이적으로 WUS 단백질이 과다 발현되도록 유도된 개체이다. 관찰 결과, 줄기세포의 발현 영역이 L1, L2층뿐만 아니라 L3층 전체로 확대되었다.

[실험 3] 돌연변이체 C는 WUS 유전자와 CLV3 유전자가 모두 결핍된 이중 돌연변이체이다. 관찰 결과, 정단 분열 조직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생장이 멈추는 돌연변이체 D(WUS 단독 결핍)와 동일한 표현형을 보였다.

- ① [실험 1]은 CLV3가 WUS를 억제하여 줄기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는 음성 피드백이 존재함을 뒷받침하겠군.
- ② [실험 2]는 L1층에서 과다 발현된 WUS 단백질이 원형질 연막사를 거쳐 다른 층으로 이동해 작용함을 시사하겠군.
- ③ [실험 3]은 WUS 결핍보다 CLV3 결핍에 따른 세포 증식이 표현형 결정에서 유전적으로 우선함을 보여주겠군.
- ④ [실험 1]의 개체에 정상 CLV3 단백질을 처리하면 줄기세포의 수가 정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추론하겠군.
- ⑤ [실험 2]에서 L1층 수층 분열이 억제되어도 L3층의 병층 분열이 유지되면 분열 조직의 부피 생장은 가능하겠군.

17. 문맥상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는 밧줄로 통나무 수레를 힘껏 이끌었다.
- ② 이 제품은 시장의 새로운 유행을 이끄는 주역이다.
- ③ 어머니는 내 손을 이끌고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셨다.
- ④ 화려한 간판이 행인들의 눈길을 이끌었다.
- 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S-1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5	7	5	13	1
2	3	8	2	14	1
3	4	9	1	15	3
4	2	10	5	16	3
5	4	11	3	17	2
6	3	12	2		

[1번 정답 및 해설]

- ⑤ 훑어읽기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핵심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글을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이다.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하기 위해 글을 느린 속도로 읽는 방법은 정독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는 정독의 특성을 훑어읽기에 귀속시킨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독서 속도는 “독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의 하나”라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훑어읽기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정독은 “글에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이나 개념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지며 읽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
- ④ 2문단에서 “느리게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느리게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2번 정답 및 해설]

- ③ ㉠은 훑어읽기를 통해 파악한 구조 정보가 정독에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3문단을 보면 이 정보는 “어느 부분을 정독할 것인지 판단”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선지가 제시한 “독서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에만 활용된다”는 한정은 지문에 근거가 없으며, 훑어읽기 정보의 활용 범위를 하나의 용도로 축소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훑어읽기를 통해 파악한 구조 정보가 정독에서의 세부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훑어읽기가 정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 자체가 “훑어읽기를 통해 미리 파악한 글의 구조 정보는 이후의 정독에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부합한다.

- ④ 2문단에서 “독자가 글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각 문단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의 같은 문장에서 글의 구조를 미리 아는 것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3번 보기 설명]

한 학생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읽으며 기록한 독서 일지가 주어졌다. ㉠~㉣ 각각이 지문에서 제시한 훑어읽기, 정독, 또는 두 방법의 통합 활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은 어떤 방법에 “의존”하여 어떤 한계가 발생했는지를 지문의 논리에 비추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번 정답 및 해설]

- ④ ㉠에서 학생은 “세부 수치가 나열된 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보고서 전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 세부 수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정독에 해당하며, 전체 맥락을 놓친 것은 3문단에서 “정독에만 의존하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정확히 대응한다. 선지는 이를 훑어읽기에만 의존한 경우라고 서술하였으나, 훑어읽기에만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세부 정보를 놓치는 것이지 전체 맥락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학생은 보고서의 목차와 각 장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 전개 순서를 파악하였다. 이는 1문단에서 “제목, 소제목, 문단의 첫 문장 등을 중심으로 글의 윤곽을 잡는” 훑어읽기에 해당한다.
- ② ㉡에서 학생은 기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요인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며 읽었다. 이는 “개념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지며 읽는” 정독의 활용에 해당한다.
- ③ ㉢에서 학생은 독서 목적과 거리가 먼 부분은 빠르게 넘기고 핵심 데이터가 제시된 부분에 집중하여 천천히 읽었다. 이는 3문단에서 “독서 목적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을 정독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⑤ ㉣에서 학생은 도입부에서 보고서의 전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고 이후 각 장의 핵심 논거를 예측할 수 있었다. 훑어읽기로 파악한 구조 정보가 이후 정독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4번 정답 및 해설]

- ② (가)는 기술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기술관의 한계를 지적한 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기술의 본질을 탈은폐의 양태, 특히 현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으로 규명한다. (나)는 기술이 인간성을 억압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문화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며, 인간이 기술적 대

상의 조정자이자 통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대비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의 본질(몰아세움)을 부각하기 위한 대비 구조이다. (나)는 특정 기술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비판하고 인간-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 ③ (가)의 하이테거는 기술적 사유가 존재 망각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는 것이지 미래 사회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나)의 시몽동은 기술이 인간 소외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④ (가)는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구분하지만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이테거가 주장하는 것은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이다. (나)는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의 구분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 ⑤ (나)의 시몽동은 기술을 중립적인 수단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적 대상이 단순한 효용의 묶음이 아니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진화하는 존재라고 본다. 기술 사용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주장한다.

[5번 정답 및 해설]

- ④ (가) 3문단에서 하이테거는 인간이 자신을 기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인간 역시 기술적 과정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 자원으로 관리된다”고 하였다. 현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 주체적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 것은 하이테거가 비판하는 착각에 해당하며, 그의 견해와 정반대이다.

[오답 해설]

- ① (가) 2문단에서 하이테거는 현대 기술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고 저장하도록 강요하는 도발적 요청”인 몰아세움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자연이 스스로 피어나는 것과 대비되는 방식이다.
- ② 같은 문단에서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자립성을 상실하고 언제나 대체 가능한 자원, 즉 부품으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 ③ (가) 1문단에서 하이테거는 도구적 기술관이 “기술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술은 “존재자가 비은폐성으로 나아오는 방식, 즉 탈은폐의 한 양태”라고 하였다. 기술을 수단으로만 보는 태도는 이 탈은폐의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
- ⑤ (가) 3문단에서 하이테거는 기술이 “모든 것을 부품화하는 방식으로만 세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사유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존재 망각이라 부른다.

[6번 정답 및 해설]

- ③ (나) 2문단에 따르면 ㉠[구체화]는 기술이 진화할수록 “부품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부품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체적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는 기계가 “스스로 내적 정합성을 갖춘 유기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는 이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구체화]는 부품들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외부 보조 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구체화 이전의 추상적 기계의 특성이다. 선지는 구체화의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기계가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구체화는 기계의 부품들이 내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지, 자율적 증식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나) 2문단에서 “기술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단순한 도구의 개선이 아니라, 기술적 대상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완결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필요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술은 이에 반한다. 인간의 신체 기능을 모방한다는 내용도 지문에 없다.
- ⑤ 구체화는 기계가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적 정합성을 갖추는 과정이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이 아니다.

[7번 정답 및 해설]

- ⑤ (나)의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구체화를 통해 완결성을 향해 진화한다고 본다. 하이테거가 기술이 자연을 강요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몽동의 관점에서 보면 기계의 내적 진화 원리, 즉 구체화를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통찰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몽동의 관점과 어긋난다.

[오답 해설]

- ① (나) 1문단에서 시몽동은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기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이테거가 기술을 인간성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본 것은 이 문화적 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시몽동은 “기술적 소외는 기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기계의 본성을 오해한 문화적 관습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하였다. 하이테거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으로 파악하여 비판한 것은, 시몽동의 관점에서 기술을 문화적 실재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 ③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이 부품들의 상호 의존적 통합을 통해 내적 정합성을 갖춘 존재로 진화한다고 본다. 하이테거가 존재자를 부품으로 전락한 것으로만 보는 시각은, 기계가 가진

이러한 내적 정합성과 진화의 잠재력을 간과한 것이다.

- ④ 시몽동은 인간이 기술적 대상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시키는 지휘자이자 통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가 기술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몽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기술에 참여하여 그 잠재력을 매개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태도이다.

[8번 보기 설명]

성과 관리 시스템이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최적의 효율을 제안하고, 사용자들이 실시간 순위표에 따라 스스로 고강도 스케줄을 선택하는 상황이 주어졌다. (가)의 하이데거 관점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간을 부품화하고 존재 망각을 초래하는지를, (나)의 시몽동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구체화 양상과 인간-기술의 상호 작용 관계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8번 정답 및 해설]

- ② 보기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의 제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 3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적 자원으로 관리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사용자 역시 시스템이 설정한 효율성 지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이 갖는 근원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몰아세움에 종속된 존재 망각 상태이지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유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다. 하이데거의 자유란 기술의 본질을 직시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가) 3문단에서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화하며 “존재의 본질을 사유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존재 망각이라 부른다. 보기의 사용자가 효율성 지표 외에 “자신의 삶이 갖는 근원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사유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존재 망각에 해당한다.
- ③ (나) 2문단에서 시몽동은 기술이 진화할수록 부품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통합되어” 내적 정합성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시스템이 흡인된 활동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스스로 최적의 효율을 제안하는 양상은, 기술적 대상이 여러 기능을 통합하며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 1문단에서 시몽동은 “인간과 기술이 상호 작용하며 진화하는 존재”라고 파악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의 지표를 활용해 데이터로 가시화되는 성장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기술적 대상의 존재 방식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기술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의 단초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자가 비은폐성으로 나아오는 방식”이라 보았고, (나)의 시몽동도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위한 단순한 도구의 개선이 아니라,

기술적 대상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완결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 둘 모두 기술이 중립적인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9번 정답 및 해설]

- ① ㉔의 ‘가리고’는 도구적 기술관이 기술의 본질을 보이지 않게 감추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은폐(隱蔽)하고’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다’라는 뜻으로, 대상을 보이지 않게 가린다는 점에서 ㉔의 문맥적 의미와 부합한다.

[오답 해설]

- ② ㉕의 ‘드러나게’는 장인이 제작을 통해 사물을 그 자체로 현현시킨다는 의미로 쓰였다. ‘폭로(暴露)’는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들춰내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것을 밝힌다는 함의를 지닌다. ㉕의 ‘드러나게’는 사물의 진리가 발생하는 긍정적 과정을 가리키므로, 부정적 뉘앙스의 ‘폭로’와는 의미가 다르다.
- ③ ㉖의 ‘투입되어’는 인간이 기술적 과정에 넣어져 사용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귀속(歸屬)되어’는 ‘재산이나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불거나 딸리다’ 또는 ‘어떤 단체의 소속이 되다’라는 뜻이다. 인적 자원으로 ‘투입되어’ 활용된다는 문맥과, 소유권이나 소속이 정해진다는 ‘귀속’의 의미는 다르다.
- ④ ㉗의 ‘갖춘’은 기계가 내적 정합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포착(捕捉)한’은 ‘꼭 붙잡다’ 또는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이다. 어떤 성질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다는 ‘갖춘’과, 무언가를 잡거나 알아챈다는 ‘포착’은 의미가 다르다.
- ⑤ ㉘의 ‘통합될’은 기술이 문화의 일부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타협(妥協)될’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통합’과, 의견 차이를 양보하여 조율한다는 ‘타협’은 의미가 다르다.

[10번 정답 및 해설]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 과정을 보면, 투자자가 추가적인 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현금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한 후에,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이 증가한다. 즉, 투자자의 인수 대금 납입으로 자산이 유입되는 사건이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이 증가하는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증가한 후에 인수 대금 납입과 자산 유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선지의 진술은 시간적 및 인과적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할 때 부채인 사채가 소멸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 ②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교환 대상 주식이 발행사의 자기주식일 때는 그 차액이 자본 항목인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달리 타사 주식일 때

는 주식처분손익으로 당기순손익에 반영된다.

- ③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전환가격이 주가 변동에 연동되는 사채의 옵션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여 옵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이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 ④ 지문 4문단에 따르면 하향 조정된 전환가격을 주가 상승 시 최초 전환가격 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대상은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공모 사채와 교환사채는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된다.

[11번 정답 및 해설]

- ③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식을 인도하므로 발행사의 총 발행 주식 수에 변동이 없다. 지분율은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므로, 기존 주주가 지분율 희석을 겪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행사 시 사채가 소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부채 감소에 따른 재무적 결과일 뿐, 지분율 희석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적 원인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 사채가 소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만, 신주가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따라서 사채 소멸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지분율 비희석의 원인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 신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한다. 이와 달리 교환사채는 기존 보유 주식을 인도하므로 발행사의 총 발행 주식 수에 변동이 없다.
- ②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교환사채의 권리를 행사하면 사채 부채가 소멸하여 부채 총액이 감소하는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도하므로 발행사의 총자산이 감소한다.
- ④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는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 자본금 변동이 없고, 발행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기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⑤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교부받는 주식이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자본 항목에 반영되어 당기순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타사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익으로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회계 처리상의 영향이 달라진다.

[12번 정답 및 해설]

- ② 지문 3문단에 따르면 내재가치는 주가에서 전환가격을 뺀 값으로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일 때는 영이 된다. 리픽싱 조항이 없는 사채는 주가가 최초 전환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내재가치가 완전히 소멸하여 즉시 영이 된다. 반면 리픽싱 조항이 있는 사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므로, 주가와 전환가격 사이의 격차를 좁혀 내재가치가 영이 되는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 발생시킬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지문 3문단을 보면 주가가 하락하면 내재가치와 시간가치가 모두 하락하여 옵션 가치가 감소한다.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이는 가치 하락을 방어할 뿐이며, 주가가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므로 옵션의 시간가치와 전체 가치는 주가가 하락 이전보다 낮아진다.
- ③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전환가격 하향 조정 시 교부받을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투자자가 확보하게 되는 최종 지분율의 증가 비율이 교부 주식 수의 증가 비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분율은 기존 발행 주식 수와 교부받을 주식 수의 합을 분모로 삼고 교부받을 주식 수를 분자로 삼는 분수식 구조를 가지므로,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교부받을 주식 수가 더해져 주식 수 증가와 지분율 증가 사이에는 단순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주가가 하락하여 옵션 가치가 감소하면 발행사는 파생상품부채의 감소로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므로,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전환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해 신주 발행 규모가 늘어나 지분율이 희석되는 대상은 기존 주주들이다. 사채 투자자는 리픽싱을 통해 더 많은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하방 위험을 보전받으며 평가 손실을 입지 않는다.

[13번 보기 설명]

상장법인인 A사가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교환사채를 최초 행사가격 10000원, 리픽싱 하한선 7000원으로 하여 각각 발행한 상황이 주어졌다. 이 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6000원으로 폭락했을 때와 12000원으로 반등했을 때 사채의 종류에 따라 행사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파악하고, 각 시점의 행사가격에 따른 교부 주식 수와 평가 차익을 산출해야 한다.

[14번 정답 및 해설]

- ① 주가가 6000원으로 폭락했을 때, 전환가격과 교환가격은 모두 리픽싱 하한선인 7000원의 구속을 받으므로 7000원으로 고정된다. 이후 주가가 12000원으로 급반등할 때, 지문 4문단에 따라 사모 전환사채는 최초 전환가격인 10000원 한도 내에서 전환가격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므로 전환가격이 10000원이 된다. 반면 사모 교환사채는 상향 조정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하향 조정되었던 교환가격인 7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권리 행사 시 사모 전환사채의 투자자는 액면금액 21억 원 대비 행사가격 10000원을 적용받아 21만 주의 신주를 교부받고, 주당 2000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총 4억 2천만 원의 평가 차익을 얻는다. 이와 달리 사모 교환사채의 투자자는 행사가격 7000원을 적용받아 30만 주를 교부받고, 주당 5000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총 15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는다. 따라서 사모 교환사채는 주가 상승

시 의무 사항 조정에서 제외되어 교환가격이 7000원으로 유지되므로, 사모 전환사채보다 더 많은 주식을 교부받고 평가 차익도 더 크다.

[오답 해설]

- ② 주가가 6000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리픽싱 하한선인 7000원의 제한을 받으므로 전환가격은 7000원이 된다. 따라서 액면 금액 21억 원을 전환가격 7000원으로 나눈 30만 주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여기서 전환가격을 주가와 동일한 6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사모 전환사채의 의무 사항 조정 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인 10000원이므로, 주가가 12000원으로 상승해도 전환가격은 10000원이 된다. 따라서 주당 2000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하므로 평가 차익이 없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 ④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주가 상승에 따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황 조정되면, 권리 행사 시 발행되는 신주 수가 30만 주에서 21만 주로 줄어든다. 신주 발행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률은 주가가 6000원일 때에 비해 감소한다.
- ⑤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도하므로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지 않으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도 발생하지 않는다.

[14번 정답 및 해설]

- ① 2문단을 보면 바깥의 초층인 L1, L2층 세포는 표면에 수직인 수층 분열만 수행하여 평면상에서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반면 줄기의 부피를 늘리고 내부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내체인 L3층 세포가 병층 분열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L1층과 L2층 세포가 표면에 평행하게 분열하여 내부 조직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해설]

- ② 2문단에서 중심대 아래의 갈비대는 내부 기본 조직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갈비대가 줄기의 중심부 조직을 형성하며 중심대의 하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을 보면 갈비대의 상부이자 중심대 바로 아래에 줄기 세포의 성질 유지를 돕는 형성 중심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정단부 중앙의 중심대에는 미분화 줄기세포가 존재하지만, 이를 둘러싼 주변대에서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 기관 시원체로 발달한다. 이는 주변대 세포들이 중심대 세포들에 비해 세포 분열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1문단에서 줄기 끝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줄기세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세포를 공급하여 줄기, 잎, 꽃 등 모든 지상 기관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5번 정답 및 해설]

- ③ 4문단을 보면 사이토키닌은 형성 중심에서 WUS 발현을 촉진하고, 사이토키닌 신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A-type ARR이다. 만약 A-type ARR이 과다하게 활성화된다면 사이토키닌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받게 된다. 사이토키닌의 촉진 신호가 차단되거나 약화되므로, 결과적으로 형성 중심에서의 WUS 발현은 정보보다 억제된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WUS 단백질은 줄기세포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줄기세포 생성 유도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WUS 유전자가 결핍된다면 줄기세포의 미분화 성질이 유지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줄기세포의 수는 정보보다 감소한다.
- ② 3문단에서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CLV3 단백질은 형성 중심의 CLV1 수용체 등과 결합해 WUS 발현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WUS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부위는 주변대가 아니라 갈비대 상부의 형성 중심이므로, CLV3 단백질은 주변대가 아닌 형성 중심 부위로 이동하여 작용한다.
- ④ 4문단을 보면 WUS는 중심대 세포의 옥신 반응성을 낮추어 줄기세포의 조기 분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심대 세포는 분화를 유도하는 옥신에 대한 반응성이 주변대 세포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CLV3 단백질은 형성 중심의 CLV1 수용체 등과 결합하여 WUS 발현을 억제하는 피드백 역할을 수행한다. 수용체 결합으로 결합이 불가능해지면 WUS 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게 되어 WUS 단백질이 과다해지고, 이는 줄기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가져오므로 형성 중심이 축소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

[16번 보기 설명]

보기에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조절 메커니즘을 밝기 위해 수행한 세 가지 애기장대 돌연변이체 실험이 제시되어 있다. CLV3와 WUS 유전자의 상실 또는 특정 부위에서의 인위적 과다 발현이 줄기세포의 발현 범위와 전체 분열 조직의 부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전자가 식물의 길이 및 부피 생장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16번 정답 및 해설]

- ③ 실험 3에서 WUS 유전자와 CLV3 유전자가 모두 결핍된 이중 돌연변이체 C가 WUS 유전자만 단독으로 결핍된 개체 D와 동일하게 정단 분열 조직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생장이 멈추는 형태를 보였다. CLV3 유전자의 단독 결핍은 실험 1에서 보듯 줄기세포와 정단 분열 조직을 과도하게 증식시키지만, WUS 유전자가 함께 결핍되면 이러한 세포 증식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조직 형성 자체가 중단된다. 이는 CLV3 결핍에 따른 세포 증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WUS 단백질의

존재가 필수적 전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표현형 결정에서 WUS 결핍 효과가 CLV3 결핍 효과보다 유전적으로 우선한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늘어나 CLV3 단백질이 증가하면 형성 중심에서 WUS 발현이 억제되어 줄기세포 생성이 감소한다. 실험 1에서 CLV3 유전자 기능이 소실되어 억제 신호가 사라지자 줄기세포 수와 분열 조직 부피가 크게 증가한 결과는, CLV3가 WUS의 발현을 통제하여 줄기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상호 피드백 과정을 뒷받침한다.
- ② 3문단을 보면 형성 중심에서 만들어진 WUS 단백질은 세포 사이의 통로인 원형질 연락사를 거쳐 중심대의 줄기세포와 인접한 세포층으로 이동하여 작용한다. 실험 2에서 세포층 중 L1층에서만 WUS 단백질을 과다 발현시켰음에도 줄기세포 발현 구역이 L2층과 L3층 전체로 넓어진 현상은, L1층에서 생성된 WUS 단백질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이웃한 세포층들로 이동하여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 ④ 실험 1의 줄기세포 과다 증식은 줄기세포가 늘어나도 정상적인 CLV3 단백질이 분비되지 못해 형성 중심의 WUS 발현을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체에 결핍된 정상적인 CLV3 단백질을 직접 공급해 주면, 형성 중심에 존재하는 정상 수용체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WUS 발현을 억제하는 피드백 경로가 복구되므로 늘어났던 줄기세포의 수가 정상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L1층은 평면상에서 표면적을 넓히는 수층 분열을 하고 L3층은 부피를 늘리고 내부 조직을 형성하는 병층 분열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피 생장은 기본적으로 L3층의 병층 분열 세포 축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L1층의 수층 분열 활동이 억제되더라도 부피를 늘리는 L3층의 병층 분열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분열 조직의 부피 생장은 가능하다.

[17번 정답 및 해설]

- ② 문맥을 고려할 때 ㉠[이끄는]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생기거나 발전하도록 주도한다는 추상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번 선지에서 시장의 새로운 유행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주도하여 발전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끄는은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깝다.

[오답 해설]

- ① ①번 선지의 이끌었다는 통나무 수레라는 물리적인 물체에 밧줄을 매달아 직접 힘을 주어 당겨 움직이게 했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의미가 다르다.
- ③ ③번 선지의 이끌고는 손을 붙잡고 목격하는 장소로 직접 데리고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신체적 행위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 ④ ④번 선지의 이끌었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 관심, 시

선 등을 특정한 곳으로 쏠리게 하거나 끌어당겼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 의미와 다르다.

- ⑤ ⑤번 선지의 이끌었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마음의 상태나 감정이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로 향하게 마음을 쏠리게 만들었다는 뜻이므로 ㉠의 의미와 같지 않다.